

버스정류장 더위 잡는 ‘얼음 생수’

정읍시, 폭염 종합대책 호평
생수 9곳·그늘막 10곳 9월까지
1인 가구에 재난도우미 파견도

정읍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폭염에 대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25 폭염 종합대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 여름 74일간의 폭염특보 경현을 바탕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 폭염종합대책이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시 전역 9곳에 얼음생수 3만병을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민들은 “무더위에 지칠 때 길가에 비치된 생수 하나가 큰 위로가 된다”,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류장, 공원, 교통섬 등 통행량이 많은 도심 속에도 스마트 그늘막 10개소가 설치돼 시민들이 폭염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강화됐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4000여명의 재난도우미를 통해 안부 확인과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총 410곳의 무더위쉼터에는 생수와 수박, 아이스크림 등을 비치해 무더위 속 휴식의 질을 높였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버스정류장 내에 비치된 얼음 생수를 찾고 있다. <정읍시 제공>

다. 특히 이학수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선풍기 개방 여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작동 상태 ▲이용 안내표지 설치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등 무더위 쉼터가 실제 기능을 하는 지 전수점검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SNS, 시 홈페이지,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무더위 쉼터 위치, 건강 수칙 등의 정보를 수시로 제공 중이며 시민들 역시 ‘부모님께 안부전

화 드리기’,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 등 참여형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남원시 폐가전 수수료 면제·순환경제 기반 마련

폐기물·자원순환 관련 조례 개정...한명숙 시의원 발의안 2건 통과

남원시의회가 시민의 불편 해소와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 관련 조례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남원시의회는 최근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숙(사진)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자원순환기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에 해당

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폐기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민들은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 명칭을 ‘남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조례’로 변경했다. 개정 조례에는 순환경제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구매,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자원의 생



산부터 소비,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자원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유도한다.

한명숙 남원시의회 의원은 “그동안 전기·전자제품 폐기 시 시민이 내던 수수료가 2026년부터 면제되면서 보다 손쉬운 폐가전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시민 삶과 밀접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민장학재단, 우수 대학생에 장학금

전년보다 20명 늘어난 190명 선발 총 4억4040만원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우수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발 인원은 재단 이사장인 민선 8기 이학수 시장의 공약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장학인원 확대 계획은 2026년까지 총 200명 선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20명이 늘어난 19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4년제 대학생 156명, 전문대생 34명이다. 신청 자격은 부모 중 1인 이상이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의 대학교 재학생이다.

학기별 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율로 환산한

평균 성적이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장학생에게는 4년제 대학생 220만원, 전문대학생 18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총 지원금액은 4억4040만원 규모이며 성적과 생활 형편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이 정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8일까지 장학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8월 20일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남원시 ‘안심 수돗물’ 공급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정밀여과장치 설치 10월 준공

남원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 위생인증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는 유충 유입 방지 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에 노력하는 정수장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정수지 유입·유출 관로에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해 소형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총사업비 5억6600만원을 투입, 월락정수장 소형생물 대응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월락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정수장에 대한 위생 및 운영체계 점검을 통해 위생안전 인증 획득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는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어족자원 회복 16억 투입

구시포·동호 인근 연안해역 넓치·감성돔 등 방류



어업 관계자들이 군의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따라 넓치, 감성돔 등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어족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대규모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창군은 올해 16억3600만원을 들여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넓치, 감성돔, 메기 등 현재까지 89만 마리의 방류가 완료됐고 남은 사업도 다음달 중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1일에도 구시포와 동호 인근 연안해역에서 감성돔 치어 65만 마리를 방류했다.

감성돔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자연산에 대한 수

요가 높아 연안어업 어민들의 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종이다. 특히 양식이 어려운 어종 특성상 방류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 분석이다.

군은 방류 전·후 수산자원 현황조사 및 생태환경 분석,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류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생태계 보전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황윤석도서관’ 11월 개관 준비 착착

고창 ‘황윤석도서관’이 오는 11월 개관을 앞두고 지역의 대표 도서관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군은 황윤석도서관은 고창읍 월곡뉴타운지구 내에 연면적 381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 중이라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와 디자인가구, 장비 발주 및 계약 절차 등 개관을 위한 사전 준비에 한창이라고 14일 밝혔다.

신속 도서관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 군립도서관은 지난 1일부터 휴관해 이관 대상 장서와 물품을 정리하고 준공과 동시에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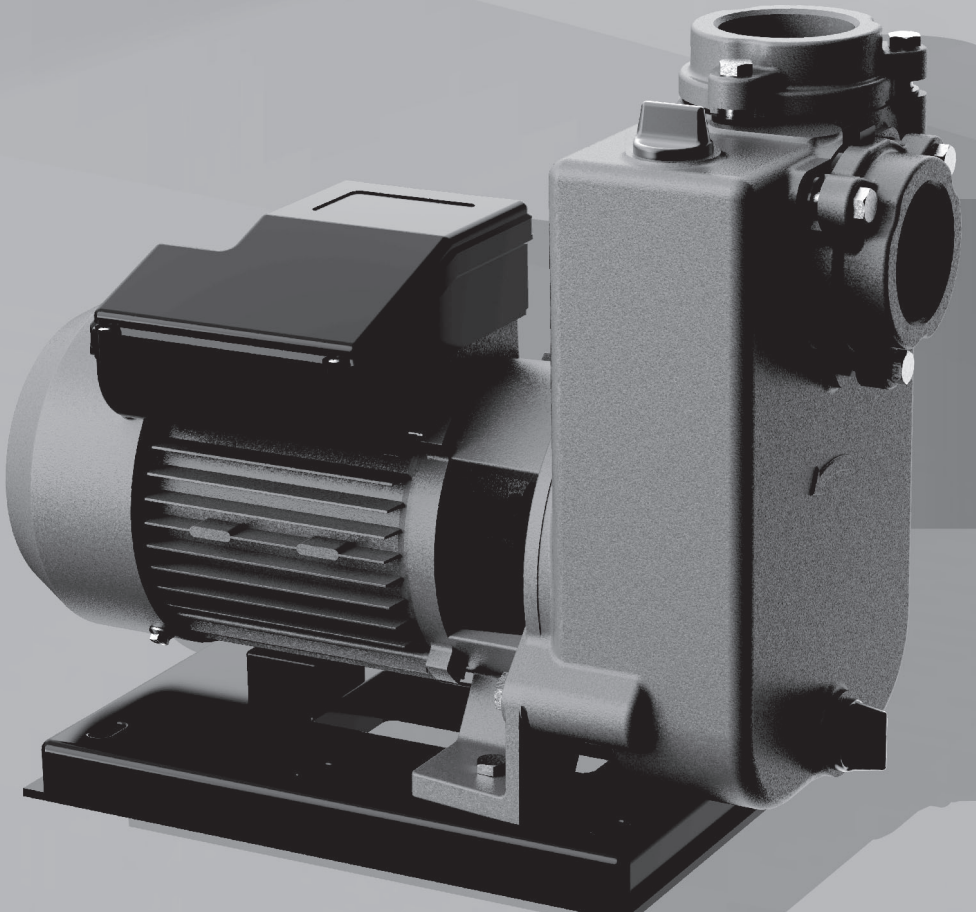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중이다.

휴관으로 불편을 겪을 군민들을 위해 군은 황윤석도서관 개관까지 군립성호도서관을 휴관일 없이 일요일까지 확대 개방해 운영한다.

황윤석도서관은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종묘’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깊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군은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자 공간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 가구와 자동화 기기 도입 등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